

데이터베이스는 표준화가 기본이다

정보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표준화 체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시행중인 표준화 관련 법령과 관련 시행 지침 등은 표와 같으며, 이 가운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부분은 어느 곳에도 명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김태중/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기획관리부장

바벨탑이 성공하진 못한 이유는

신이 인간의 정보 교류를 저지하고, 방해하였기 때문이다. 즉, 정보 교류를 위한 표준화, 의사 표시 및 전달 체계의 표준화를 저해한 결과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현대 정보 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이 지식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활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킴에 있어 정보 교류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정보사회에서 하드웨어도 중요하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보 사회의 핵심은 정보 즉, 데이터베이스이다. 정보가 없는 정보사회는 정보사회가 아니다.

또한 정보는 체계적으로 표준화된 형태로 정리되어야 본래의 가치가 충분히 발휘되며 시간성 내지 개인적 특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정보기반 구축 계획에서도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새삼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육성을

위해 정부는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 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초고속 공공 응용 서비스, 원격 시범 사업 등과 같은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공공 데이터베이스 개발 보급 사업은 그동안 잠자고 있던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을 깨워 일으키는 데 여러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정보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표준화 체계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현재 시행중인 표준화 관련 법령과 관련 시행 지침 등은 표와 같으며, 이 가운데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부분은 어느 곳에도 명

구분	산업 전반	정보통신	
		전기통신	전산망
관련법	산업표준화법	전기통신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대상	공산품	통신, 방송장비	컴퓨터, 소프트웨어
주관 기관	국립기술품질원	정보통신부	
관련기관/단체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전산원
	한국산업표준원	ETRI 정보통신 표준연구센터	
규격명	한국산업표준(KS)	전기통신표준(KCS)	전산망표준(KIS)

〈표〉 국내 산업전반의 표준체계 현황

확히 정리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의 사회는 정보사회라 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준비, 기반을 이루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표준 체계는 거의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다.

물론, 산업 표준이나 전산망 표준 등에서 국제 표준을 일부 번역하여 국내 표준으로 제정한 사례도 적지 않다.

정보사회에서 핵심은

정보사회이며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정리, 활용되어야 함에도 데이터베이스 품질이나 제작 공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 표준화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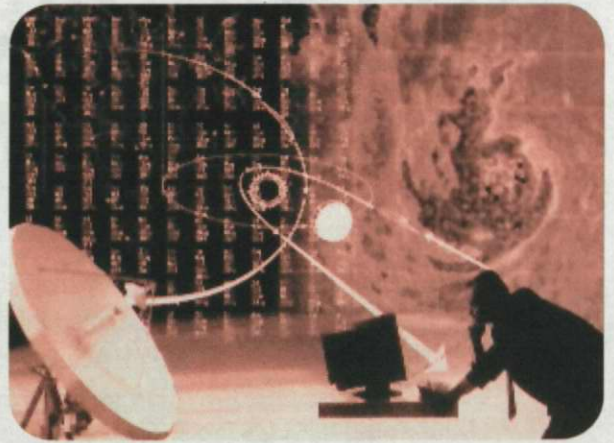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PC통신이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검색 등에 필요한 명령어 체계가 사업자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위한 메뉴 체계도 다양하여 사용자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다.

더욱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가 도입되면서 아이콘의 모양과 배열 위치 등에 관한 표준은 이제 보급되기 시작한 단계인 만큼 표준화에 의한 이용자의 혼동을 막고 데이터베이스 이용을 친숙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급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는

제작, 유통, 이용에 필요한 도구와 과정 등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다음의 3개 관점에서 나누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 첫번째가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대한 표준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 품질 기준 등에 관한 것이며 두번째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각종 제작, 이용 방법 등



인간이 지식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고 활용하여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킴에 있어 정보 교류의 효율화를 위한 표준화가 필수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정보는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정리, 활용되어야 함에도 데이터베이스 품질이나 제작 공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에 대해 표준화가 적절히 추진되고 있지 않다.



방법론의 표준 그리고, 세번째로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데 관련된 표준으로 기호, 용어, 코드 등이 있다.

일본에서는 과학기술정보를 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활용 중에 있으며 미국, 영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가 규격 내에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이에 관한 표준의 연구 개발 및 제정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만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표준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DX**